

도교육청, 하반기 교장공모제 시행

총 22곳서 교장공모 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신청해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학년도 하반기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안내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자로 교장 결원(정년퇴직·종인단료)이 발생하는 도내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16개교, 중·고등학교 32개교다. 이중 3분의 2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 실시학교를 지정할 예정으로, 이럴 경우 초·

11개교, 중·고 11개교 등 총 22개교에서 교장공모가 가능하다. 교장공모 대상 학교 중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중·고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5월29일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를 선정·통보하고, 6월2일 교장공모 실시학교(학교장·담당자·학교

운영위원장)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교장공모 지정학교를 대상으로 6월4~12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고, 1차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 같은 달 15~18일 재공고에 들어간다. 이후 6월25~30일까지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7월2~7일까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8일 최종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 2020년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4년간 해당 학교를 이끌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다"면서 "교직원·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참고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유교문화 비판적 성찰 통해 이데올로기적 가면 벗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연구총서 7권 발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연구총서 7권 '탈유교사회의 정치문화사(호를)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총서는 '유교를 넘어서' 그리고 '유교문화와 함께'라는 취지로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성과를 모은 것이다. 총 9권의 논문은 1부 '동아시아 정치담론'에 4권, 2부 '탈유교사회의 문화와 정책'에 5권으로 각각 나눠 수록했다.

김운희의 빈민에 대한 차별적 관리, 유교와 근대 통치의 관계, 장순순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향약 정책', 미즈노 나오키의 '식민지 조선의 사상문화정책(思想文化政策)'과 '향약(鄕約)·자위단(自衛團)'이 포함됐다. '탈유교사회'에서 '탈'은 일반적으로 '제거, 벗겨냄, 해방, 넘어섬', '초월'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접두사다. 이번 총서 '탈유교사회의 정치문화사'에서도 유교의 제거, 유교의 이데올로기적 가면을 벗겨내 폐기한다는 유교에 대한 거부 의의와 동시에 유교적 관습 질서로부터의 해방이나 유교사회의 역할 기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의 의미를 담았다.

전주대 관계자는 "이번 총서를 비롯해 HK+연구단의 연구 결과와 유교문화학의 '근대 전환기 호남의 공문장과 유교학 관계망'이 수록돼 있다.

2부 '탈유교사회의 문화와 정책'에는 류시현의 '정인보의 조선 유교와 한국 고대사 인식', 배귀덕의 '식민지기 조선 기독교회의 자립론에 관한 일

고찰', 김운희의 빈민에 대한 차별적 관리, 유교와 근대 통치의 관계, 장순순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향약 정책', 미즈노 나오키의 '식민지 조선의 사상문화정책(思想文化政策)'과 '향약(鄕約)·자위단(自衛團)'이 포함됐다. '탈유교사회'에서 '탈'은 일반적으로 '제거, 벗겨냄, 해방, 넘어섬', '초월'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접두사다. 이번 총서 '탈유교사회의 정치문화사'에서도 유교의 제거, 유교의 이데올로기적 가면을 벗겨내 폐기한다는 유교에 대한 거부 의의와 동시에 유교적 관습 질서로부터의 해방이나 유교사회의 역할 기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의 의미를 담았다.

전주대 관계자는 "이번 총서를 비롯해 HK+연구단의 연구 결과와 유교문화학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인간 관계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선수 기량 향상 적극 지원"

전북스포츠과학센터(센터장 이영란)가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스포츠과학센터는 그간 축적돼 있는 데이터(50여 종목·5000여명)를 빅데이터로 구축, 종목과 연령에 따른 체력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하기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확한 운동 동작을 통해 훈련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을 제작, 일부 종목에 배포했다. 이번만은 아니다. 코로나19로 대외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돕고 있다.

이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앞으로 선수 발굴 및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체육대회가 중단 돼 실전 경험을 쌓는 무대가 줄어들자 종목별(탁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

비대면 방식인 유선전화를 통해 심리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멘탈강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란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지원은 할 수 없지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그림책 원화전... 오늘 ~6월 5일

전북교육문화회관(관장 오진)은 '창상 마음 상상 생각'을 주제로 채승연, 이순욱 작가의 그림책 원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화전은 당초 4월 1일부터 전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변경돼 5월 6일~6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실) 전북교육문화회관 제2전시실, 교육4실, 체육관 등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채승연, 이순욱 작가의 원화 49점과 스케치작업, 집필도구, 드로잉 61점의 다양한 그림책 컨텐츠로 구성돼 있다. 작가 강연은 총2회로 채승연 작가와의 만남이 5월 9일, 이순욱 작가와의 만남이 5월 23일 각각 14시에 운영된다. 또한 그림책에 영상, 클래식 음악, 샌드아트와 같은 다양한 장치들을 접목한 그림책 문화예술공연은 5월 16일 11시에 운영된다.

이영란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지원은 할 수 없지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역사회와 상생·도약' 다짐

전주대 개교 56주년 기념식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4일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개교 56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주요 보좌자와 수상자만 참여했다. 이날 기념식은 전주대 교육혁신수목사의 기도 인도와 이호인 총장의 기념사로 시작했다.

이어 연공상 우수교육자상 수퍼스타직위상, 표창패 및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연공상은 근속연수가 30년이 된 윤찬영 교수, 정준구 교수(사회복지학과), 박상업 교수(탄소나노소소재공학과)와 20·10년이 된 18명의 교직원들이 수상했다. 대학발전에 기여해 온 교직원에게

수여되는 우수교육자상과 우수연구자상, 수퍼스타직위상은 각각 강인선 교수(산업공학과)와 임애란 교수(과학교육과), 김연정 과장 등 18명의 교원과 5명의 직원이 수상했다.

또한 전주대에서 40년 동안 몸담으며 교육을 위해 헌신한 김래선 명예교수와 이재운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하였으며, 한편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고 세 자녀를 모두 전주대 한문교육과에 진학시켜 증등한문교사로 키워낸 김희경 동문(한문교육과 82학번)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3명의 경비·미화원께도 표창패가 전달됐다.

이호인 총장은 "채학성과 동문 교직원 한분 한분의 노력이 전주대의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도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64년 개교한 전주대는 졸업생 7만 여 명을 배출한 전북지역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최근 교육부 주관 각종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획득, 각종 국책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내외로부터 그 성과와 능력을 입증 받고 있다.

전주비전대 44회 개교기념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개교 44주년 기념식이 지난 4일 비전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홍순직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및 외부 60여명이 참석했다.

홍순직 총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기념식은 학과 발전기금 전달식, 외부

감사패 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근속패 수여, 우수 교직원 시상, 우수 학과 및 행정부서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홍순직 총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더욱 심해진 경기침체 및 기업 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청년 취업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컨텐츠와 인프라를 조속히 확보하고 학과 간 개방형 융복합형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총장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프로젝트 수주와 발전기금 유치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코로나 19 위기를 이겨냅시다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제 53회 황토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을 위해 온라인 추모관 운영 및 유튜브 생방송으로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2020. 5. 9(토) · 황토헌 구민사 일원

www.황토헌.com